

축구

6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K리그1 챔피언 전북, '김신욱 대체자' 찾았다

장신 FW 벨트비크 영입 확정적

신장 196cm·네덜란드리그서 검증 타깃형 공격수...남아공 대표 경력 경남 쿠니모토 영입도 동시에 추진



벨트비크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확정된 분위기다. 2020시즌 전주성을 누빌 주인공은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가장 오랜 역사(1888년 창단)를 지닌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주전 스트라이커 랄스 벨트비크(29·남아프리카공화국)다.

K리그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5일 "전북이 남아공 포워드 랄스 벨트비크의 영입을 사실상 결정했다. 오래 전부터 상대 구단·선수 측과 교감을 나눴고 최근 영입에 근접한 것으로 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도 나를 만족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장 196cm의 전장한 체구를 자랑하는 랄스 벨트비크는 네덜란드 무대에서 실력이 검증된 알짜배기 스트라이커다.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로 2019~

2020시즌 네덜란드 1부 리그 15경기를 뛰며 4골을 기록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국가대표 커리어도 보유했다. 2016년 11월 남아공 유니폼을 입고 모잠비크와의 친선경기를 누비며 A매치에 데뷔했고, 지난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해 5경기를 소화했다.

이적이 최종 성사될 경우, 전북은 베테랑 토종 골게터 이동국(41)의 부담을 덜어줄 또 하나의 전방 옵션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97.5cm의 골잡이 김신욱(32)을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 떠나보낸 전북은 화력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다.

다만 랄스 벨트비크는 전북이 추진한 '제1 옵션'은 아니었다. 당초 전북은 브라질 세리에A 명문클럽 SC코린티안스의 공격수 구스타보(26·브라질)와 먼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단 스카우트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신임 감독이 4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단식에서 구단기를 흔들고 있다. 황 감독은 "1부 승격이 최대 목표이자 비전 중 하나"라고 목표를 밝혔다. 대전 | 뉴스

황선홍 감독, 대전하나시티즌서 새출발

"축구특별시의 부활" 1부 승격 선전포고

4일 창단식...1년 8개월만에 복귀

K리그2(2부 리그) 대전시티즌을 인수한 하나금융그룹이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하나금융그룹축구단은 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새로운 팀 이름과 엠블럼, 유니폼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시민구단으로 운영된 대전시티즌은 2020시즌엔 기업구단으로 참가한다. 도시민구단이 기업구단으로 바뀐 첫 번째 사례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구단의 이사장은 허정무 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맡았다. 초대 사령탑에는 황선홍 감독이 선임됐는데, 1년 8개월 만에 K리그 복귀다.

황 감독은 명예회복을 노린다. 1990년대 한국축구의 간판 공격수로서 활약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큰 힘을 보탠 그는 지도자로도 두각을 보였다. 2008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감독생활을 시작한 뒤 포항 스틸러스에서 처음으로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2013년 구단의 재정난으로 외국인 선수 없이도 국내파로 2관왕(정규리그+FA컵)을 차지했는데, 당시 '황선대원군'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5년간 포항을 맡은 뒤 2016년 여름 중국으로 떠난 최용수 감독에 이어 FC서울 지휘봉을 잡은 그는 심판매수 파문을 일으킨 전북 현대의 승점 감점으로 행운의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탄탄대로는 거기까지였다. 이듬해부터 팀이 흔들렸다. 세대교체와 리빌딩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특히 2018년에는 팀의 주축선수와의 불화설이 터져 나왔고, 성적도 추락했다. 결국 그 해 4월말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해엔 중국 연변 푸더(2부 리그) 지휘봉을 잡았으나 시즌을 앞두고 팀이 전격적으로 해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다시 K리그다. 하지만 1부가 아닌 2부에서 시작한다. 그는 4일 기자회견에서 "1부보다 기술은 떨어지더라도 열정과 수비가 강하다"면서 "축구특별시라는 명성이 걸맞게 대전을 다시 축구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역할을 명문구단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할 일이 1부 승격이다. 자신을 믿고 맡겨준 구단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그는 "1부 승격이 최대 목표이자 비전 중 하나다.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안에 1부로 진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후배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특히 2002년 챔버들과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는데, 설기현 경남 감독과 양보 없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는 "젊은 세대들의 축구가 궁극적이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것이다"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황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건 '하나 된 팀'이다. 팀이 하나가 될 때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선 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선수들에게도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축구 콤팩트뉴스

K리그1 MVP 김보경, 전북 현대 컴백



김보경

지난 시즌 K리그1 최우수 선수(MVP) 김보경(31)이 전북 현대로 컴백했다. <스포츠동아 2019년 12월 30일자 6면 단독보도>. 전북은 5일 "2019시즌 K리그1 MVP를 수상하고,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함께 했던 김보경을 다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전북 유니폼을 입은 김보경은 지난해 울산 현대에 몸담으며 35경기 출전해 13골·9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전북 홈 팬들의 열정을 잊지 못했다. 아시아 최강에 오를 그날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울산, J리그 가시마 출신 정승현 영입

K리그1 울산 현대가 일본 J리그 가시마 엔트러스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정승현(26)을 영입했다. <스포츠동아 2019년 12월 26일자 단독보도>. 울산 유스 출신의 정승현은 2015년 프로 데뷔 후 2017년 시간도사로 이적하며 J리그에 진출했다. 지난해 가시마로 팀을 옮겼고, 새 시즌을 앞두고 친정 팀 복귀를 확정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2018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정승현은 "프로 초년병 시절이 기억난다. 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원, GK 이범수·임채민 등 전력 보강

K리그1 강원FC가 골키퍼 이범수(30)를 영입했다. <스포츠동아 2020년 1월 1일자 단독보도> 강원은 K리그2로 강등된 경남FC에 수비수 박창준과 현금을 엮는 조건으로 이범수를 데려왔다. 2010년 전북에서 프로 데뷔한 그는 K리그2 서울 이랜드와 대전 시티즌을 거쳐 2017년부터 경남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5경기에서 35실점을 했으나 수많은 선방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강원은 또한 임채민, 고무열 신세계 등의 영입도 확정했다.

반갑다, 기성용! 3개월만에 경기 출전



기성용

기성용(31·뉴캐슬 유나이티드)이 3개월여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기성용은 4일(한국시간) 영국 로치데일에서 열린 리그 1(3부) 로치데일과의 2019~2020 FA컵 3라운드에서 후반 8분 교체 출전했다. 지난해 9월 레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이후 3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후반 종료직전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 시도했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뉴캐슬은 1-1로 비겨 재 경기를 치르게 됐다. 기성용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새 팀을 찾고 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U-23챔피언십 격전지 태국 입성한 김학범호, 도쿄행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1 15일 우즈베크전 1000km 대이동

- 2 C조 중국·이란·우즈베크 만만찮은 전력
- 3 이강인·백승호 공백·베트남 만날수도
- 4 승부사 김학범 감독 경험·용병술 기대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국축구가 2020도쿄올림픽 본선을 향해 댕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김학범 감독의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8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열리는 태국에 5일 입성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펼쳐진다. 상위 3팀에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일본은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대회 성적에 관계없이 올림픽 본선에 나선다. 일본이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하면 준결승에 오른 4팀이 모두 올림픽 본선에서 메달을 노려볼 수 있다.

마냥 장밋빛 전망은 아니다. 대회 조별리그 경쟁국들부터 만만치 않다. 중국(9일)·이란(12일)·우즈베키스탄(15일)과 C조에 편성됐다. 이 중 중국·이란전은 태국 송클라에서, 나머지 한 경기는 방콕에서 벌어진다. 태국의 남부 도시 송클라와 수도 방콕의 거리가 1000km에 달해 이동의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U-23 대표팀은 13일 회복훈련을 마친 뒤 방콕으로 향한다.

더욱이 선수단은 풀 전력이 아니다. 김 감독이 염두에 둔 이강인(발렌시아), 백승호(다름슈타트) 등 특급 자원들이 함께 하지 못해 구상이 흐트러졌다. 다행히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정상 합류했으나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조별리그 상황에 따라 토너먼트 무대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대회 준비도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9월 예정된 시리아 평가전은 상대 선수단 여권 문제로 취소됐고, 지난달 28일부터 말레이시아 팔라렝푸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연습경기를 낙후된 잔디 상태로 포기했다. 3일 호주와 비공개 평가전을 전·후반 50분씩 치른 배경이다.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다. '승부사' 기질이 강한 김 감독의 경험이 믿음직스럽다. 2018 자카르타-팔렝방 아시안게임에서도 U-23 김학범호는 거센 견제와 도전을 뚫고 금빛 시상대에 우뚝 선 바 있다. 김 감독은 "민반의 준비를 다했다. 후회 없이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정현 기자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이 2020도쿄올림픽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김학범호는 전지훈련을 진행한 말레이시아를 떠나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펼쳐지는 2020 AFC U-23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태국에 5일 입성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